

손명수 차관, “신속한 복구 및 추가피해 최소화에 총력”

10일 폭우로 단절된 철도·도로 복구현장 잇따라 방문·공사관계자노고격려

-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(월), 주말 동안 기록적 폭우로 단절된 경전선 ‘광주-남평’ 간 피해복구 현장과 구례군 소재 국도 17호선 서시1교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과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.
- 경전선 ‘광주-남평’ 간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손 차관은 시설물 복구 및 열차 운영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“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복구작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- 이어, 구례군의 국도 17호선 서시1교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수고가 많은 직원과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특히, 국가 기반시설인 국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“신속한 복구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 지반이 약해져 있으므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점검활동을 철저히 하여 위험구간은 선제적 조치를 해 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- 손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, 국토부(국토관리사무소)가 가동할 수 있는 장비·자재·인력 등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다.

2020. 8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